

# 한국과 중국의 지역격차 실태의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Korea and China

왕 쯔 웬 (중국 청도시 외상투자복무센터 - 주저자)

홍 준 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교신저자)

### *Abstract*

Ziyuan Wang / Jun-Hyun Ho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in Korea since 1990s when local autonomy started and in China since 2000s whe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launched. This research identifies six dimensions of regional disparity of population, local economy, local finance, human capital, public environment & facilities, and social class. Based on six dimensions, 13 indices are developed for actual data comparisons for both Korea and China. The geographical units to measure regional disparities are seven different units for Korea and six for China. First,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regions, metropolitan areas, non-metropolitan areas are employed to measure Gini-coefficient. Second, two regions are compared for 'Youngnam' vs. 'Honam',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Metropolitan regions and Non-metropolitan regions in Korea, and for 'Sandung' vs. 'Jeojang', coastal regions vs. inland regions in China. The result of comparison shows that while regional disparities exist in both nation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nature and location of regional disparities. Overall, Chinese regional disparity was greater than in Korea.

**주제어:** 지역격차,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지니계수, 지역균형발전, 지역분석

**Key Words:** Regional Disparit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China, Gini Coefficien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Analysis

\* 본 연구는 교신저자의 심층 지도하에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공동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여 주저자의 학위논문으로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다시 교신저자의 수정보완을 통해 학술논문으로 제작성된 것입니다.

## I. 서론

지역격차의 문제는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그 유형과 심각성의 차이가 있을 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은 자연히 과밀현상과 과소현상을 불러 일으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자원이용의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국민전체의 총량을 축소시키기도 한다(이상엽, 1995: 713). 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은 주민들의 정부여건과 인구분포를 균등화함으로써 안정된 인구규모를 유지하여 정주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격차는 단순히 지역 간 경제적 차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의 제반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박성복, 1996: 386).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불균형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제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은 급격한 성장으로 지역 전반의 소득이 상승하여 경제개발의 이익을 얻었는데 반해, 개발 배후지역과 지리적으로 불리한 도시는 경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김소영, 1991). 특히 그동안 주된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된 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총량적인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의 상당한 격차를 유발하였다. 더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지만, 지역여건의 불균형의 정도가 극도로 심화된 상태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역발전의 격차 또는 지역불평등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박성복, 1996: 386).

한국의 경우와 같이, 중국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서로 상반되는 지역개발정책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1978년 이후부터 개혁 개방초기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하여,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성장거점중심의 발전정책을 채택하여 불균형적 지역발전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도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발전가능성이 큰 동부 연해지역을 먼저 발전시키는 등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역격차는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제발전상황에서 동부지역과 내륙지역의 발전격차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에는 선전(深圳) 등 주강삼각주지역, 1990년대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이들 지역과 더불어 베이징, 톈진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 경제권이 새로운 성장지대로

서 부각되고 있다(김미경, 2010: 14).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정부는 2000년부터 정치안정과 사회발전을 위해 일련의 지역격차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서부대개발, 중부궤기, 동북진흥정책 등이다. 그러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역 상황을 무시하고 전 지역에 생산력을 평균적으로 배치하는 균형화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 고민이라 할 수 있다(이상엽, 1995: 713; 주장환, 2006: 272). 중국의 지역 간 빈부차이는 광의적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협의적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지역격차의 초점은 주로 동부·중부·서부인 3대 지역격차에 맞추어져 왔다. 지금까지 이 3대 지역의 지역격차를 점차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성 간, 성 내, 도시 간, 도시 내, 도시·성 간, 도시·농촌 간의 차이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지역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시아국가로서 국토개발 및 정책의 실행에 있어 유사한 발전 단계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점차 급속한 경제발전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시대마다 순차적 집중개발, 거점개발 등 불균형 지역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전략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간 격차의 감소 등 방면에서 중국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중국 지역격차의 실태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발전경험을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0년대 이후의 한국과 2000년대 이래 균형발전정책 실시이후의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지역격차의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성장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격차의 개념

지역격차란 지역 간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요인으로서의 사회, 생활, 교육 등의 인간적 제 조건에 관한 격차이다(정재철, 1984). 지역격차 개념의 변화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역격차를 정의하다가 차츰 사회복지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입장에서 정의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지역격차의 의미는 주로 경제개발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로 설명되어 왔다(한표환, 1994; 홍기용, 1994).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가 개발되는 과

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이론상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될 수 없다. 더욱이 정치·행정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총량적인 소득의 수치만을 가지고 지역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영모, 1987: 196; 김상호, 1998: 231). 근래에는 지역불균형의 의미를 개발의 이익으로 나타나는 소득, 지역복지, 생활의 질 또는 인간의 기본수요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량적 성장모형이 전제하고 있던 자동적 공간과급(automatic trickle-down)의 가설이 현실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자 지역개발을 위한 인본주의적 접근의 하나로써 삶의 질 지표의 활용이 이미 오래 전에 논의되기도 하였다(황명찬, 1994).

지역격차의 개념을 소득격차라는 개념에서 확대하여 삶의 질의 격차로 해석한다면, 지역격차는 외형적·물질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 행복과 같은 의식적 측면과 건강상태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강인재, 1996: 2). 이는 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Cutter, 1985; Horly & Little, 1985; 정구현 외, 1994; 강인재, 1996).

## 2. 지역격차 측정 관련 선행연구

### 1) 한국의 지역격차 측정 관련 선행연구

김윤상·김수동(1984)은 3개년도(1970, 1975, 1980)의 자료와 18개 개별지표를 이용하여 경북지역의 지역발전도와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지역발전도 점수(표준화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지역간, 남북간, 시·군간의 격차는 각 연도별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모(1987)는 지역불균형의 변천과 원인을 조명하기 위해 2개 연도(1975, 1985)의 사회지표를 4개 차원, 8개 개별지표 간 동등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표와 표준화 지수를 산출한 후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 간 격차는 점차 간격이 줄어들고 있으며, 13개의 개별지표 중 주택보급률을 제외하고는 각 개별지표의 지역 간 불균형이 감소되고 있다. 박성복(1997)은 1996년의 자료에 대해서 8개 자원(지역경제, 지방세계화, 지방재정, 지방사회 간접자본, 과학기술수준, 인적자본형성, 생활환경, 사회통합) 83개 개별지표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광역자치단체별, 영역별 지역발전도와 지역격차를 비교하였다. 홍준현(1999)은 8개년도(1990년~1997년간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의 5개 영역(지방경제, 지방재정, 사회간접자본, 인적자본, 생활환경), 23개 개별지표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지역격차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정원식(2001)은 10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해서 변이계수 측정방법을 통해 1990년대의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지역격차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도시 간 격차를 심화 또는 완화시키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재희(2003)는 한국의 전지역을 수도권, 태백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구분하고 1995년과 2000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여 3개 부문 7개 지표에서의 지표별 비율분석을 통해 공공투자의 지역간 격차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김경수·김형빈(2006)의 경우 단계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각 주체간 역할 분담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7개 부문 36개 지표를 선정한 후 1995년-2002년까지의 지역격차의 변화추이를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고찰하였다. 이희창·박희봉·강유진(2006)은 수도권 여타 지역들과 지역특성과 개발환경이 상이한 경기도 북부의 개발수준과 낙후실태가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6개 영역 40개 지표를 선정하여 각 영역별 현황을 변이계수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측정값에 대해 경기도 남부 및 전국 타 시·도와 지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의 지역격차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지표	연구방법
김수동·김윤상(1984)	경상북도	18개 지표	3개년도(1970, 1975, 1980) 자료 이용 부문별 요인분석
김영모(1987)	광역자치단체	12개 지표	2개 년도(1975,1980)자료 이용 부문별 요인분석
박성복(1997)	광역자치단체	8개 영역 83개 지표	1996년(일부 1995년)자료이용 지표종합 후 순위 부여, 변이계수, 지니계수 측정
홍준현(1999)	광역자치단체	5개 영역 23개 지표	1990년~1997년 간의 시계열로 분석 변이계수, 지니계수 측정
정원식(2001)	광역자치단체	10개 지표	변이계수 측정 회귀분석
심재희(2003)	광역자치단체	3개 부문 7개 지표	지표별 비율분석
김경수·김형빈(2006)	부산광역시	7개 부문 36개 지표	1995년-2002년 시계열로 분석 변이계수, 지니계수 측정
이희창·박희봉·강유진(2006)	경기도 북부	6개 부문 40개 지표	변이계수 측정 지표별 비율분석
홍준현(2006)	광역자치단체	5개 부문 21개 지표	1991년-2004년 시계열로 분석 지니계수 측정
이도선(2008)	경상북도	5개 부문 25개 지표	Mann-Whitney 분석

홍준현(2006)은 5개 부문, 21개 지표에 대해 1991년-2004년 시계열 분석을 통한 지표별 지니계수 측정을 실시하여 어떠한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도선(2008)은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5개 부문 25개 측정지표를 구성하여 지역격차를 확인하고 Mann-Whitney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았다.

## 2) 중국의 지역격차 측정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중국의 지역경제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개발 이익으로 초래되는 지역불균형이 소득, 지역복지, 생활의 질 또는 인간의 기본수요의 원인으로서는 일어나는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중국 지역격차의 현황과 발생 원인에 대해 오국장(吴国章, 1999)은 지금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의 격차의 현황, 발생원인과 격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 세 가지 방면에서 상세한 분석과 논술을 전개하였다. 이잔풍·구녕운(李占凤, 瞿凌云, 2005)은 중국 중·동부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류승강·조병(刘胜强, 周兵, 2008)은 중국의 지역경제발전 차이의 현황을 고찰하고 경제정책, 산업구조등 시각에서 지역경제차이를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발생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장수생·진혜너(张秀生, 陈慧女, 2008)는 중국지역경제발전의 특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지역발전의 전면적인 계획과 정부지역관리체제를 세우고 중·서부지역의 이전지불역량을 더 키우는 동시에 전국통일의 시장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 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이운오·조운파(李云娥, 周云波, 2007)는 10년에 걸쳐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지역 격차에 관한 정량적 예측을 하였다. 이 예측을 통하여 정부가 2002년 이래 실행된 사회주의 신농촌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부 역량을 좀 더 키우면 중국의 도시·농촌 소득의 차이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정책과 공간구조 등 측면에서는 왕춘초·여정운·후기량(王春超, 余静文, 胡继亮, 2009)이 중국지역경제 증가속도 차이의 원인을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해석하여, 정부이념의 조정과 그들의 정책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장신지·하강(张馨之, 何江, 2007)은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증가속도의 공간상관성과 공간이질성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지역경제증가속도의 공간구조와 지역발전격차의 변화과정을 제시하였다. 장평(张平, 2007)은 지역경제발전차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외상직접투자는 경제증가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학자들이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

역격차의 경제, 소득, 사회, 복지와 발생원인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이상엽(1995)은 중국 1978년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역격차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제기되었는데 이 연구는 지역격차의 실태와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규택(1997)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역 간의 편향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2원적 구조에 따른 투자 불균형으로 파생된 도·농간의 빈부격차 및 시장경제 운용에 의한 계층 간, 내부 간, 업종 간, 기업 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국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종철(1998)은 1인당 농업총생산액 및 소비액에 대한 중국의 현·시 지표를 이용하여 1990년대 중반의 중국 지역격차를 성내 및 성간, 지역 내 및 지역 간, 도시 내 및 농촌 간, 그리고 도·농간 격차로 분해하여 성내 격차보다 성간 격차가, 도·농간 보다 농촌 내 격차가, 지역 내 격차보다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도출했다. 서운석(2006)은 1991년 이후 진행되어온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실시 전후에 중국의 각 성·자치구, 동부·중부·서부 등 3대지역, 도시·농촌간에 주민수입·지출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홍열(2009)은 중국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이 중국 전역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중국 내 지역 간, 사회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 중국사회에 새로운 논란과 정치적 긴장을 가져온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중국의 각 성과 대도시, 자치구를 기본단위로 하여 각 성들의 1인당 GDP를 지역 간 불균등 추정지표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상 중국의 지역격차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중국의 지역격차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지표	연구방법
오국장 (吴国章, 1999)	광역자치단체(중국 서·중·동부)	3개 영역 6개 지표	· 1978~1995년 시계열로 분석
이잔풍, 구닝운 (李占风, 瞿凌云, 2005)	상하이·후베이성·저장성	3개영역 7개 지표	· 1990~2003년 자료 사용 · 요인분석,회귀분석
류승강, 조빙 (刘胜强, 周兵, 2008)	광역자치단체	-	· 현행연구 문헌 검토 · 질적 분석
장수생, 진혜녀 (张秀生, 陈慧女, 2008)	광역자치단체	-	· 문헌 검토 · 질적 분석
이운오, 조운파 (李云娥, 周云波, 2007)	광역자치단체	1개 지표	· 1978~2005년간 시계열로 분석 · 회귀분석
왕춘초, 여정운, 후기량	광역자치단체	4개 영역	· 1987-2007년 자료 사용

(王春超, 余静文, 胡继亮, 2009)		7개 지표	· 변이계수 측정
장신지, 하강 (张馨之, 何江, 2007)	광역자치단체	1개 지표	· 1990~2004년 자료 사용 · ESDA 분석
장평(张平, 2007)	광역자치단체	1개 지표	· 1979~2007년간 시계열로 분석 · 변이계수 측정
이상엽 (1995)	광역자치단체	3개 지표	· 1978~1993년간 시계열로 분석 · 변이계수 측정
이규택 (1997)	광역자치단체	2개 지표	· 1980~1994년간 시계열로 분석 · 지니계수 측정
이종철 (1998)	광역자치단체	2개 지표	· 2개년도(1982, 1994) · 요인분석
서운석 (2006)	광역자치단체	3개 영역 38개 지표	· 2개년도(1990, 2004) · 변이계수 측정
정홍열 (2009)	광역자치단체	1개 지표	· 1949~2005년 자료사용 · 지니계수, 변동계수, 타일지수, β수렴계수 측정

### III. 연구설계

#### 1. 지역격차의 측정 지표

##### 1) 지역격차 측정 지표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지역격차를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주관적인 측면은 인간의 가치체계나 비교준거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되고, 정교하게 설계된 설문조사나 델파이기법에 의한 심리적인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하혜수, 199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주관적인 측면을 제외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측면만을 지역격차의 적용영역으로 한정하여, 인구, 지역경제, 지방재정, 인적자본, 공공환경·시설, 사회계층이라는 6개 영역, 13개 지표를 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지역격차의 모든 측면을 누락 없이 나타내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표도 중요하다.<sup>1)</sup> 현재 중국에서 지역 균형발전하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료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격차의 측정을 다음 표의 지표로만 한정하였다.

1) 사회간접자본이란 부가가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경제생산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산업 활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고 한다.



<표 4> 지역격차의 측정 지표

영역	측정지표	산정기준	자료(한국)	자료(중국)
인구	총 인구수	주민등록집계기준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인구밀도	$\frac{\text{총인구수}}{\text{면적}} (\text{km}^2)$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지역경제	경제활동참가율(%)	$\frac{\text{경제활동인구수}}{\text{15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취업률(%)	$\frac{\text{취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수}} \times 100$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1인당지역총생산액	$\frac{\text{지역총생산액}}{\text{총인구수}} (\text{원})$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1인당 광공업총생산액	$\frac{\text{광공업총생산액(억원)}}{\text{총인구수}}$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지방재정	1인당 지방세 징수액	$\frac{\text{지역지방세징수액(억원)}}{\text{인구(만인)}}$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인적자본	취업자 중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 비율(%)	$\frac{\text{고졸이상취업자수}}{\text{총취업자수}} * 100$	www.kosis.kr	중국인구와 취업 통계연보
	고등학생 대학진학률(%)	$\frac{\text{대학진학자수}}{\text{고등학교졸업자수}} * 100$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공공환경시설	1000인 당 병상 수	$\frac{\text{의료기관병상수}}{\text{총인구수}} * 1000$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1000인 당 의사수	$\frac{\text{의료기관 의사수}}{\text{총인구수}} * 1000$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100만인 당 사회복지시설수	$\frac{\text{사회복지시설수}}{\text{총인구수}} (\text{양로 시설, 요양시설, 육아시설 등}) * 1000000$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사회계층	사회구제총인구수 비율	$\frac{\text{사회구제총인구수}}{\text{총인구수}}$	www.kosis.kr	중국통계연보

## 2) 조작적 정의

첫째, 인구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이며 모든 활동의 주체이며 양적인 수치비교가 쉽다는 점에서 도시 및 지역 인구에서 성장을 평가 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인구분포는 단일 변수로서 지역 불균형을 설명하는 적정변수라 할 수 있다(권일·류상규, 2005: 24). 인구밀도는 해당지역의 총인구를 총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 면적당 인구 밀집도에 대한 변수인데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산업의 집적도 역시 높아질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적경제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박지형·홍준현, 2007).

둘째, 지역경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1인당 지역총생산액, 1인당 광공업총생산액을 사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지역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큰 곳은 그만큼 의존도가 높은 인구가 적으므로 그 지역의 경제적 활력에 증가요소가 된다(Bangs & Hong, 1994). 취업률은 지역의 경제 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취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만큼 일자리가 많이 제공해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지역총생산(GRP)은 각 행정단위에서 산업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지역경제의 실태를 총량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경제 지표이다(성경룡 외, 1997; 김영모, 1997). 또한 광공업부문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간주된다. 즉 광공업 부문의 성장은 역외수출로 인한 승수효과에 의해 서비스산업과 같은 지방산업을 연쇄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Klosterman, 1990).

셋째, 지방재정 영역에는 지역의 경제 산업의 개발에 따라 지역의 재정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규모가 해당된다(김영수·변창욱, 2006; 홍준현, 1999; 박희봉·이희창, 2001).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세원이 전적으로 지방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방세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소득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한 지표이다(김영수·변창욱, 2006).

넷째, 인적자본의 질은 지역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고졸이상의 학력은 취업자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직업기술과 생활능력을 확보하는데 요구된다고 간주된다. 또한 대졸이상의 학력은 산업현장에서 보다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점점 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Bang & Hong, 1994). 학력 수준은 기업이 정규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수를 바탕으로 총취업자수로 나누어 총 취업자수 대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수의 비율을 측정단위로 한다(박지형·홍준현, 2007).

다섯째, 공공환경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환경과 관련된 지역 간 격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와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병상수와 의사수이다. 의료기관 병상수는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Bangs, Hong & Nelson, 1993). 인구대비 의사의 수는 의료서비스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는 것이 물론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홍준현, 2001).

여섯째, 사회 계층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상자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당 계층을 각 지역별 사회구제총인구수의 지표로 개발하였다.

## 2. 지역격차의 측정 단위

지역격차의 분석 단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6개와 2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sup>2)</sup> 그러나, 단순히 16개와 2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사용할 경우 지역격차의 정도가 상쇄되어 체감할 수 있는 격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지역격차의 분석단위를 단순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발적인 인식에 부합되는 보다 상위의 단위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준다. 즉, 권역별로 광역자치단체를 묶는 것이 지역격차의 일반적인 의미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홍준현,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단위에서 볼 때 지역격차가 가장 심각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리적 차원에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였다.

<표 5> 한·중 양국 지역격차의 측정 단위

측정단위	한국	중국
권역자치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개별적 분석단위로 한 지역격차	27개 광역자치단체를 개별적 분석단위로 한 지역격차
권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을 분석단위로 한 지역격차	6개 권역(화북지역, 동북지역, 화동지역, 중남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지역격차
대도시권**	7개 특별시·광역시를 분석단위로 한 대도시권의 지역격차	4개 직할시를 개별적 분석단위로 한 대도시권의 지역격차
비대도시권	9개 도를 분석단위로 한 비대도시권의 지역격차	23개 성을 분석단위로 한 비대도시권의 지역격차
지역특성	영남권과 호남권간의 지역격차	산둥성(山東省)/저장성(浙江省)의 지역격차(같은 지역의 성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간의 격차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지역격차‡

\* 6개 권역(화북지역, 동북지역, 화동지역, 중남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지역격차(전통적 지리별 분류)

화북(華北)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산시(山西)성, 네이멍구자치구

동북(東北)지역: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화동(華東)지역: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산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중남(中南)지역: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하이난성, 광시 좡족자치구

서남(西南)지역: 충칭,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시짱 자치구

서북(西北)지역: 산시성(陝西),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신장웨이우얼자치구.

\*\* 4개 직할시를 개별적 분석단위로 한 대도시권의 지역격차: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 저장성과 산둥성의 지역격차 (성간의 격차): 사영(私營)기업/국영(國營)기업 발전모형

‡ 연해지역: 랴오닝성,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광시 좡족자치구, 푸젠성, 하이난성; 내륙지역: 중국에서 연해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물론 도나 성(省)의 경우 그 면적의 광대하여 그 안에서도 지역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격차를 측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개별지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 3. 지역격차의 측정 방법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는 단순한 방법에서부터 사분편차를 측정하는 방법, 평균값으로 상대화하는 방법, 변이계수, 지니계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김호정, 2011; 이상엽, 1995; 박종화 외, 1998),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구하는 것이다(이상엽, 1995; 박종화, 1998).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는 모두 변량의 측정단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척도 무영향성(scale invariance)을 가지고, 특정분포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지 않아 상이한 분포에서도 동일한 측정치가 계산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윤상, 1986: 125). 변이계수는 지역개발분야의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니계수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배상태를 시간적으로나 혹은 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로렌츠 곡선들이 서로 교차할 경우 어느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가 혹은 불평등한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기수적인 불평등지수를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변이계수와 지니계수가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박성복, 1997).

본 연구에서는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 중 지니계수만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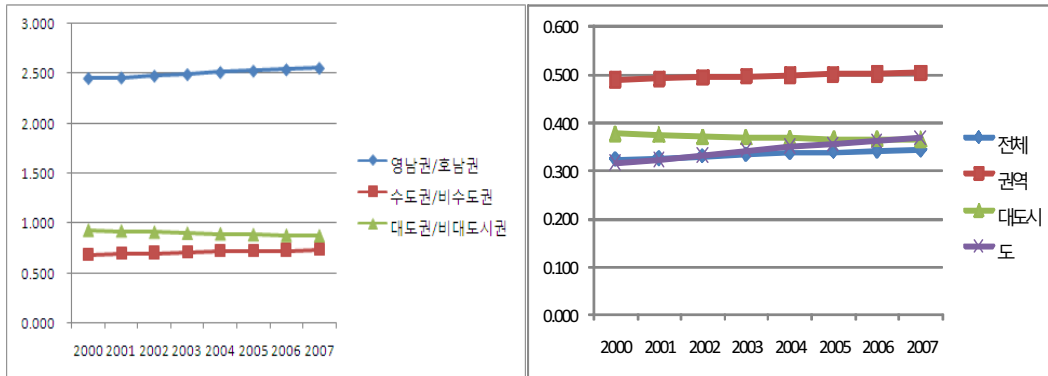
## IV. 분석결과

### 1. 한국의 지역격차 분석 결과

#### 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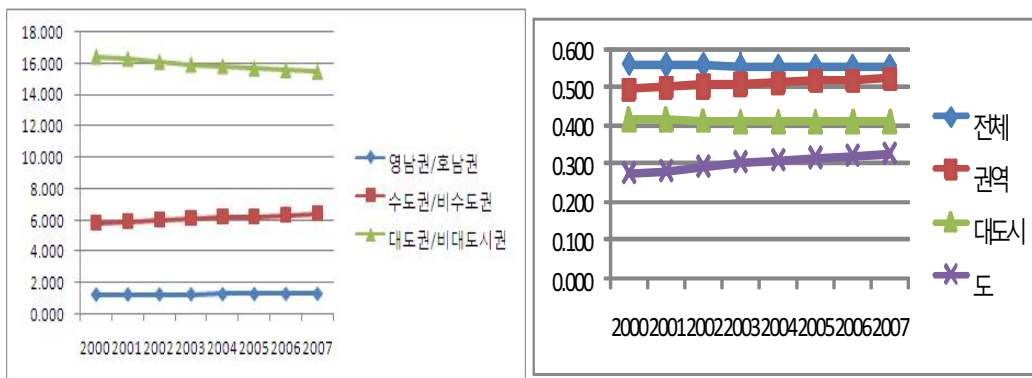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총인구에 있어서 영호남간 지역격차가 점점 증가하였고, 수도권/비수도권간 인구분포에 있어서의 지역격차의 정도는 약하지만 점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지역격차는 점차 감소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의 지역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다. 6개 권역별 지역격차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그 정도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도시간의 지역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인구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 도간의 지역격차는 빠른 속도로 그 격차가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인구분포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영호남간,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권역별 격차, 도지역간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인구수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인구밀도의 경우는 영호남간 지역격차 정도는 약하긴 하지만 점점 증가하였다. 수도권/ 비수도권간 인구밀도는 비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지역격차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점점 감소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간의 지역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지역격차의 정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7개 대도시간의 지역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6개 권역간과 9개 도간의 지역격차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6개 권역간의 지역격차 정도는 심각하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밀도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와 권역별 격차, 도지역간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 인구밀도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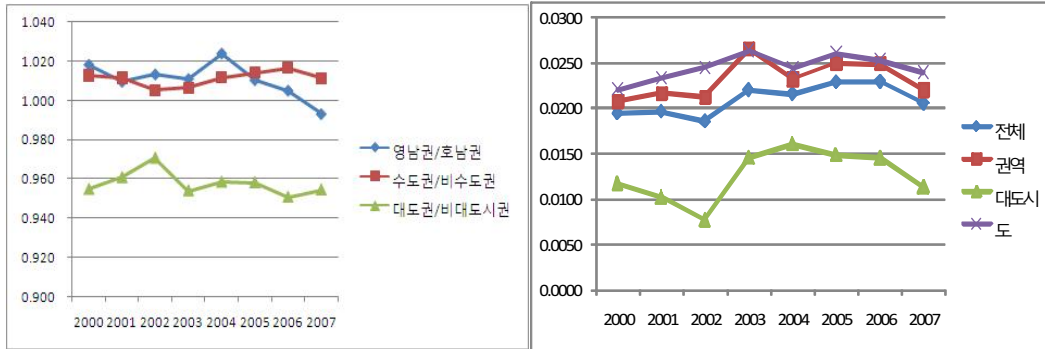


2) 지역경제

2000년대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 영호남간 격차와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편 9개 도지역간 격차가 가장 크고 그 정도는 감소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간 및 6개 권역간 격차는 대도시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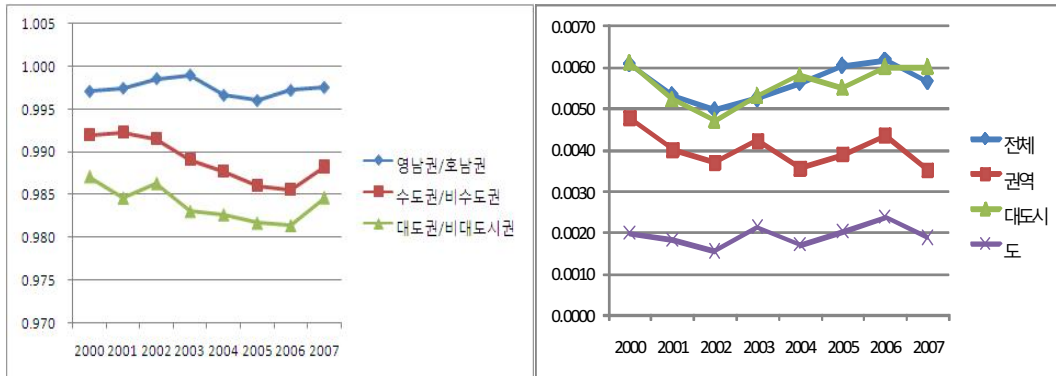
보다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 정도도 감소하였다. 2000년대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영호남간 격차와 6개 권역간 격차, 도지역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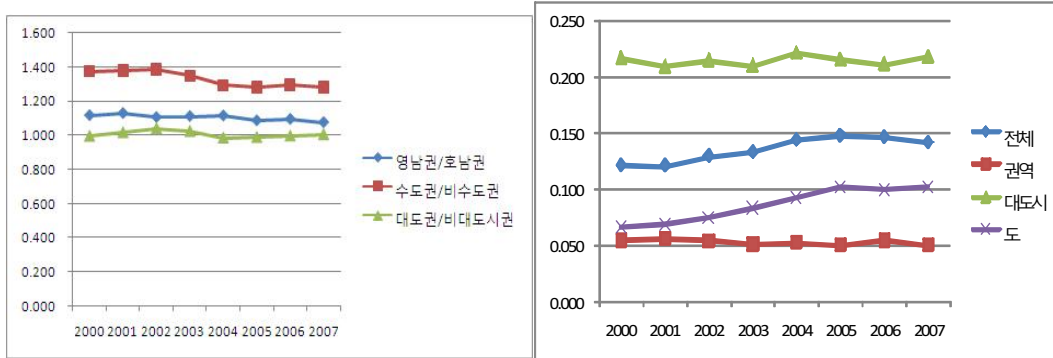
취업률의 경우는 지역간 격차는 2000년대 이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그 정도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취업률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는 미약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4> 취업률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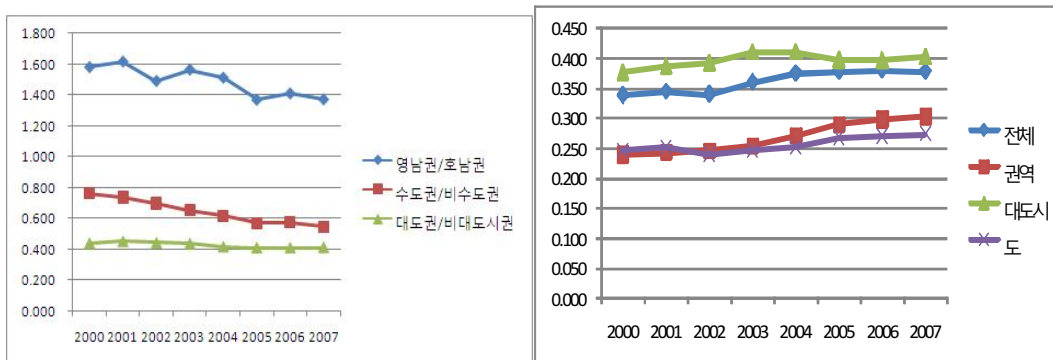
지역총생산의 경우, 2000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영호남간 격차나 대도시/비대도시간의 격차에 비해 높았으나, 격차의 정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간 격차의 정도는 심각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으나, 광역자치단체 및 도지역간의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1인당 지역생산총액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광역자치단체 간 및 도지역 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5> 1인당 지역총생산액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1인당 광공업 총생산액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 영호남간 지역격차의 정도는 큰 수준이었지만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간 및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지역격차도 점점 감소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6개 권역간, 대도시간 및 도지역간 지역격차는 증가하였다. 대도시간 격차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광역자치단체간과 6개 권역간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2000년대 이후 1인당 광공업 생산액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영호남간 격차와 대도시간 격차,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권역간 격차로 요약된다. 제4차 국토균형정책의 실시는 각 지방간의 지역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도시기능을 지방대도시로 분산하는 산업화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간의 지역총생산액의 격차를 많이 줄였다.

<그림 6> 1인당 광공업 총생산액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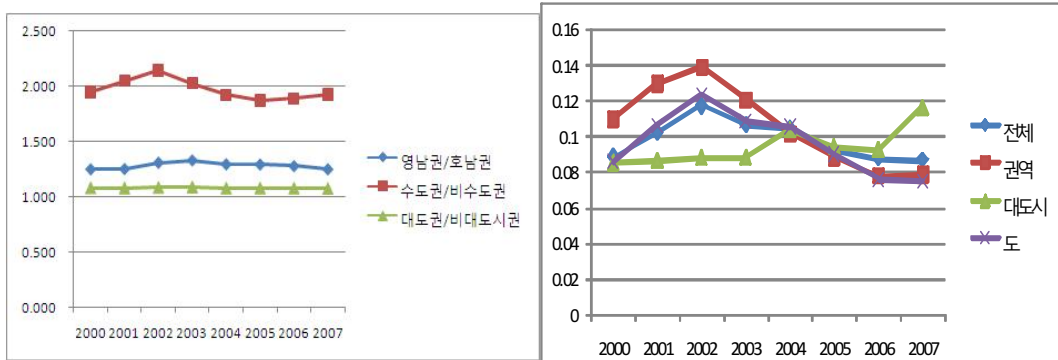


### 3) 지방재정

1인당 지방재정수입에 있어서는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격차가 크고, 격차의 정도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영호남간 및 대도시/비대도시간의 격차는 감소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6개 권역간 및 도지역간 격차가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6개 권역간과 도지역간 격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대도시간 격차는 2000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1인당 지방재정수입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와 대도시간의 격차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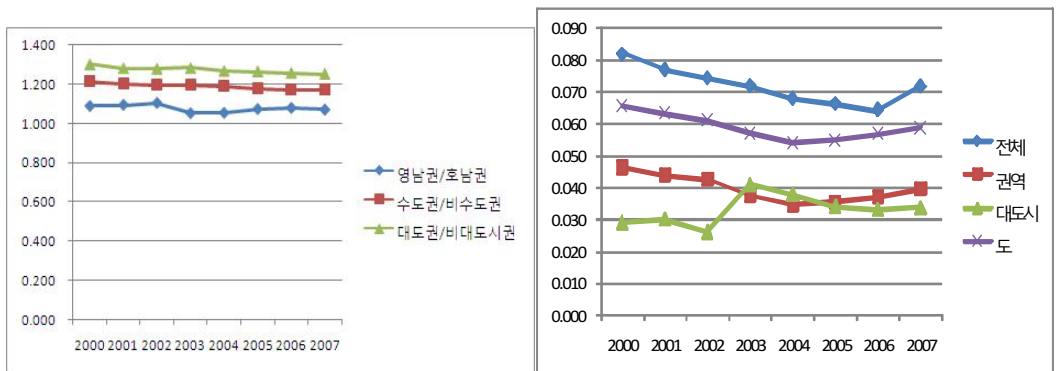
<그림 7> 1인당 지방재정수입의 지역격차의 추이(한국)



4) 인적자본

취업자중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 비율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영호남간, 수도권/비수도권간,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지역격차가 모두 감소했으나, 대도시권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6개 권역간, 도지역간 격차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도시간 격차의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고졸이상 학력유보자 비율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와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8> 취업자중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 비율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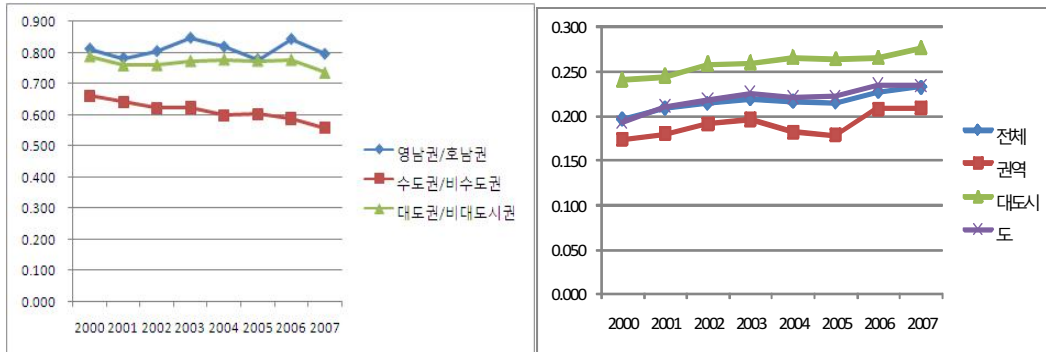


고등학생 대학진학률의 경우 영호남간 지역격차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수도



권/비수도권간,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지역격차는 점점 감소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6개 권역간, 대도시간과 도지역간의 격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7개 대도시간 격차의 정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이후 고등학생 대학진학률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영호남간 격차, 대도시간 격차, 권역간 격차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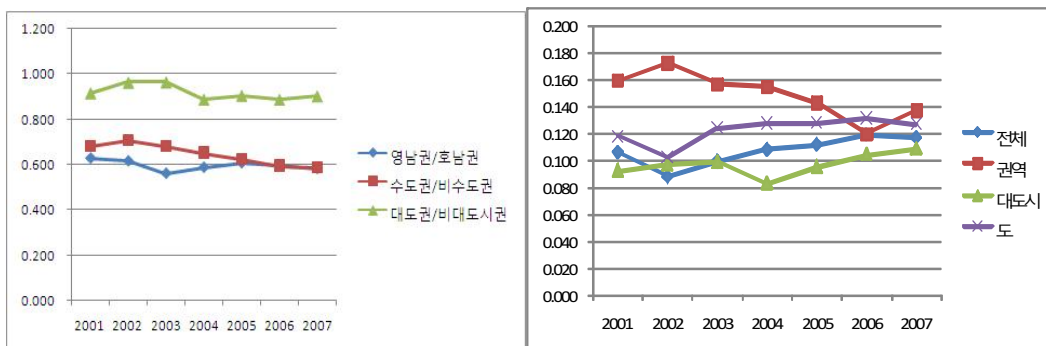
<그림 9> 고등학생 대학진학률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 5) 공공환경·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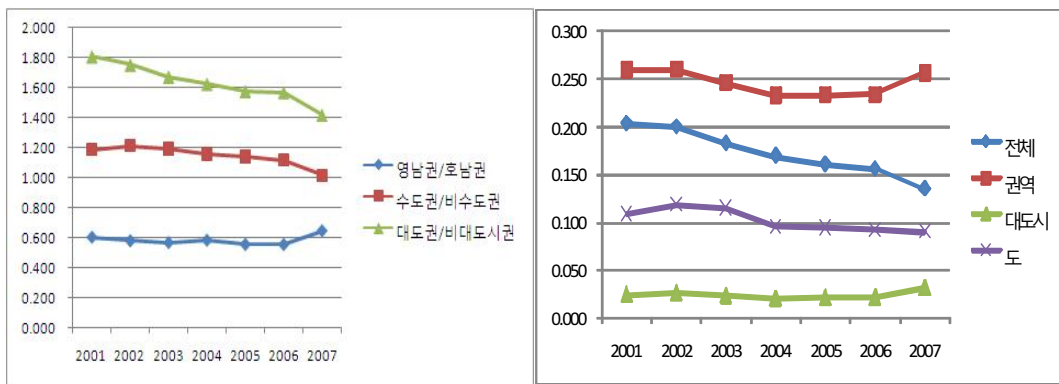
2000년 이후 1,000인당 의료기관 병상수의 지역격차에 있어서는 영호남간 격차,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 모두 감소하였으나,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권역간 지역격차의 정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점차 감소하였다. 다만, 광역자치단체간, 대도시간, 도지역간 격차는 모두 대체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7개 대도시간 격차는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천인당 의료기관 병원침대 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격차,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10> 1000인 당 병상 수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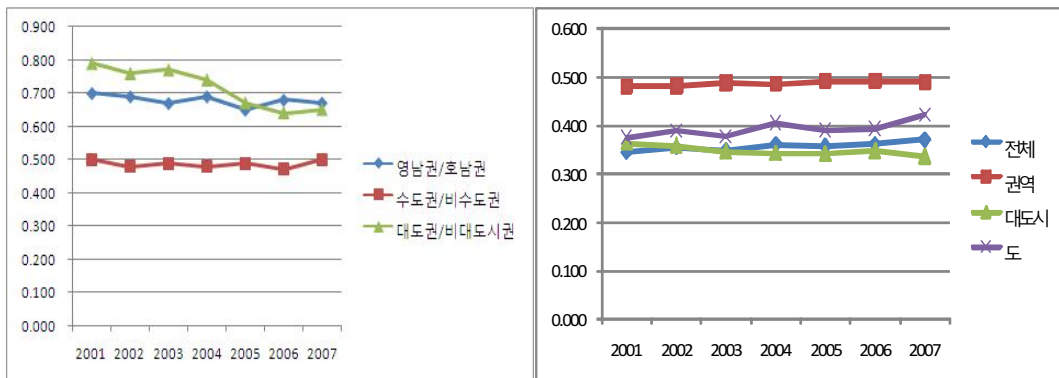
1,000인 당 의료기관 의사수의 경우 2000년 이후 영호남간 격차와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 대도시간 격차, 도지역간 격차도 모두 대체로 감소하였다. 한편 6개 권역간 격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었고 광역자치단체간 격차가 도지역간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천인 당 의료기관 의사 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 광역자치단체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11> 1000인 당 의료기관 의사수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인구당 사회복지시설수의 경우는 영호남간 격차,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가 모두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권역간 격차가 다른 지역단위간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0년대 이후 100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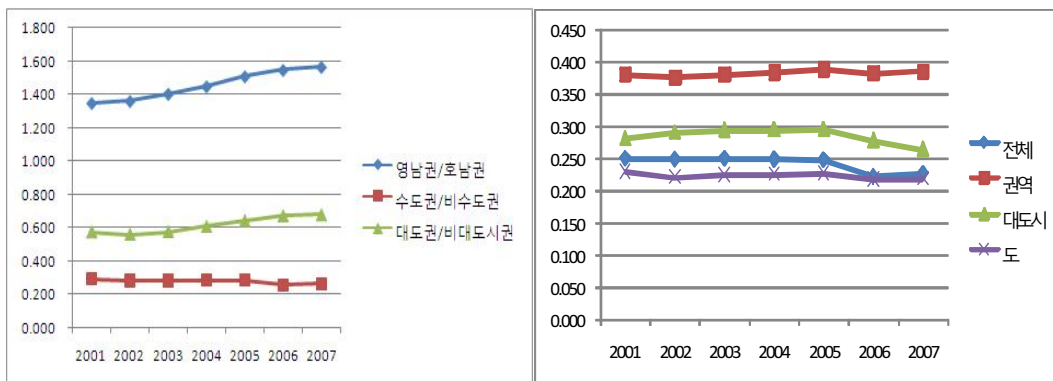
<그림 12> 100만인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 6) 사회계층

사회구제총인구수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 영호남권간 격차,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대도시권/비대도시권간 격차 모두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호남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개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7개 대도시간 격차, 9개 도지역간 격차 모두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권역간 격차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사회구제총인구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영호남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13> 사회구제총인구수 비율의 지역격차 추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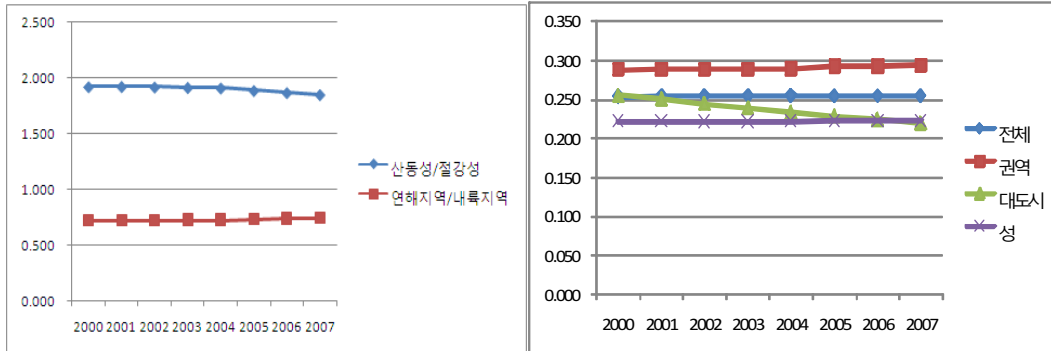


## 2. 중국의 지역격차 분석 결과

### 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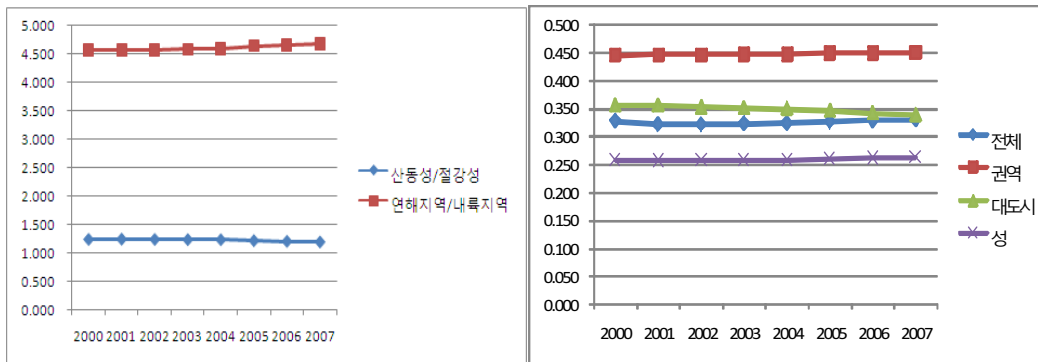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국가이다. 중국의 인구분포는 사회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인구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총인구수에 있어서 산둥성(山東省)/저장성(浙江省)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에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점점 증가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와 성지역간 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6개 권역간 격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점차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부터 실행된 서부대개발전략은 중국정부가 충칭시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대해 우대정책을 해 줄 뿐만 아니라 투자액을 점점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은 외래 투자와 외래인구들을 많이 흡수하여 네 개 직할시간 인구증가비율의 격차가 감소했기 때문에 4개 대도시간 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총인구의 지역격차는 산둥성/저장성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4> 인구수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중국의 인구밀도는 지리적, 경제적 원인에 의해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 밀도에 있어서 산동성/저장성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연해지역의 인구 증가했기 때문에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 성지역간 격차는 모두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권역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밀도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5> 인구밀도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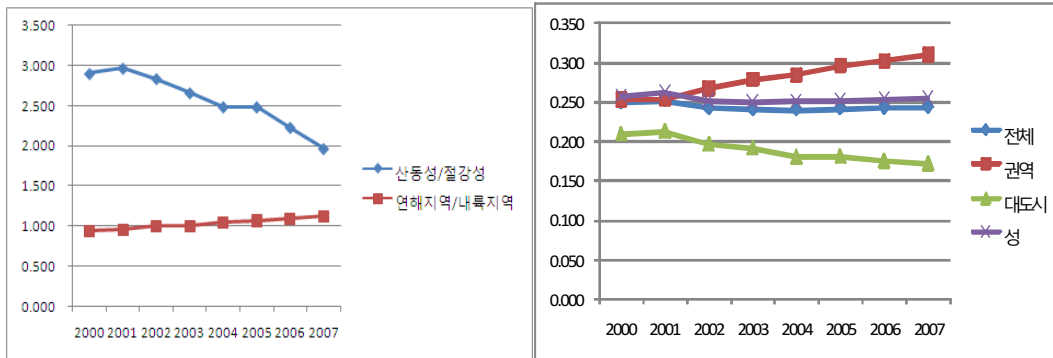


2) 지역경제

중국의 지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 산동성/저장성간 지역격차는 급속한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여 고용이 많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에 연해/내륙 지역간 격차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및 성지역간 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6개 권역간 지역격차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개 대도시간 격차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경제활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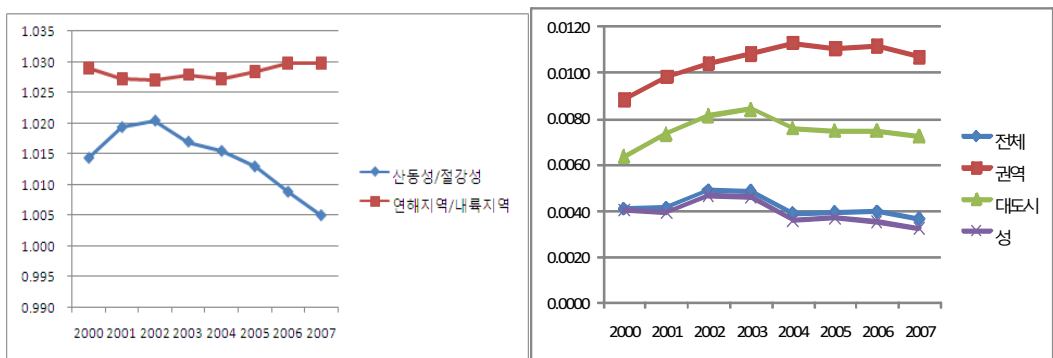
가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6>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취업률의 경우 2000년 이후 산동성/저장성간 격차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정부는 “국영 기업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산업 노동자들이 실업하게 되었다. 국영 기업을 위주로 발전해 온 산동성은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고 공업생산 역시 심각한 쇠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후진타오 주석이 출범하면서 중앙정부가 재취업을 비롯한 사회민생정책을 실시하였고, 많은 실업자들이 다시 취업하였다.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격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7개 광역자치단체간 격차와 23개 성지역간 격차는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개 권역간 격차와 4개 대도시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취업률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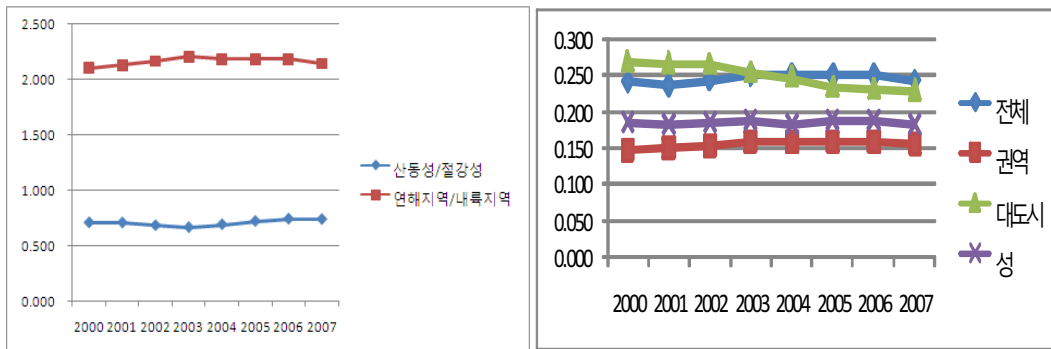
<그림 17> 취업률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인구당 지역총생산액의 경우 2000년 이후 산동성/저장성간 격차와 연해/내륙지역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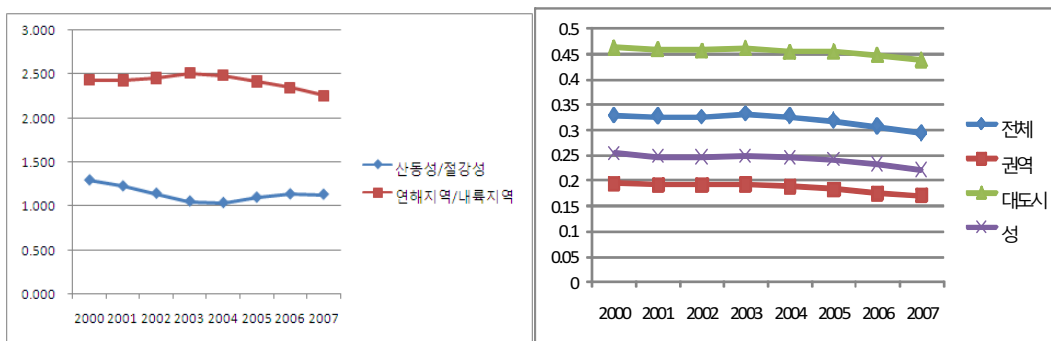
격차 모두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해/내륙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와 6개 권역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고 광역자치단체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대도시간 격차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 당 지역생산액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광역자치단체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18> 1인당 지역총생산액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인구당 광공업총생산액의 경우 산동성/저장성간 격차는 대체로 감소한 반면,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 4개 대도시간 격차, 성지역간 격차 모두 200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대도시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당 광공업총생산액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19> 1인당 광공업총생산액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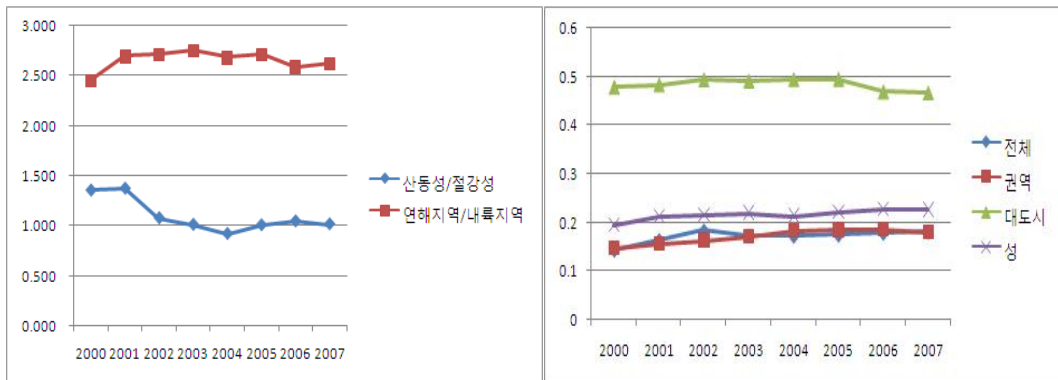


### 3) 지방재정

인구당 지방재정수입의 경우 산동성/저장성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연해/내륙

지역간 격차는 점점 증가하였다. 한편, 4개 대도시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와 성지역간 격차 모두 대체로 약간 증가하였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당 지방재정수입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로 요약된다. 산둥성에서 많은 국영기업들이 개혁을 통해 민영기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전에 중앙정부에 납세해야 되었던 기업들이 지방정부에 납세하면서 지방재정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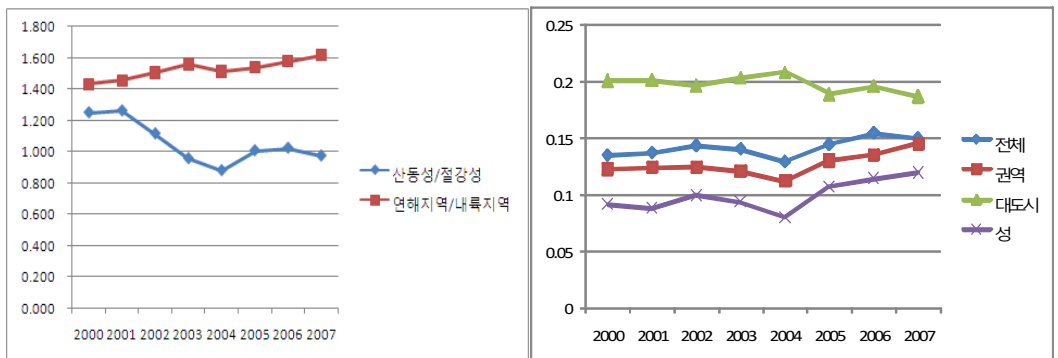
<그림 20> 1인당 지방재정수입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4) 인적자본

2000년대 이후 취업자중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 비율의 경우 산둥성/저장성간 격차는 급속히 감소한 반면,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림 21> 취업자 중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 비율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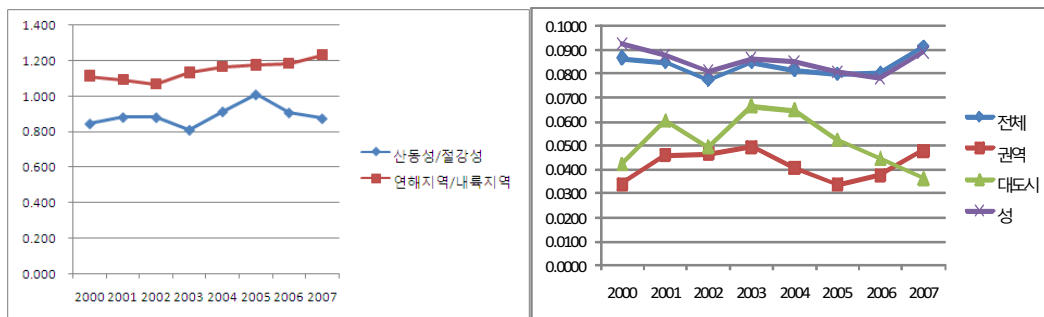


한편, 4개 대도시간 격차의 정도는 크긴 하나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와 성지역간의 격차 모두 증가하였고, 광역자치단체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취업자중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 비

율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광역자치단체간 격차로 요약된다. 산동성과 저장성에서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의 보급률이 모두 높은 수준에 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과 교육에 대해 상당히 중시한다. 연해지역은 앞에 산동성과 저장성의 경우와 비슷해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의 보급률이 모두 높은 수준에 처하고 있는 반면 내륙지역에서 교육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사람들의 교육이념도 낙후된 편이다.

고등학교 학생 대학진학률의 경우, 산동성/저장성간 격차와 연해/내륙지역간 격차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해/내륙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와 성지역간 격차는 크긴 하나 모두 대체로 감소하였다. 6개 권역간 격차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증가하였다. 결국, 2000년대 이후 고등학교 학생 진학률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된다. 산동성과 저장성에서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의 보급률이 모두 높은 수준이고 학력과 교육에 대해 상당히 중시한다. 또한, 교육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점유하고 있다. 내륙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진학우대 등록금 면제 등 교육우대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내륙지역 자체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해지역보다 아직도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22> 고등학생 대학진학률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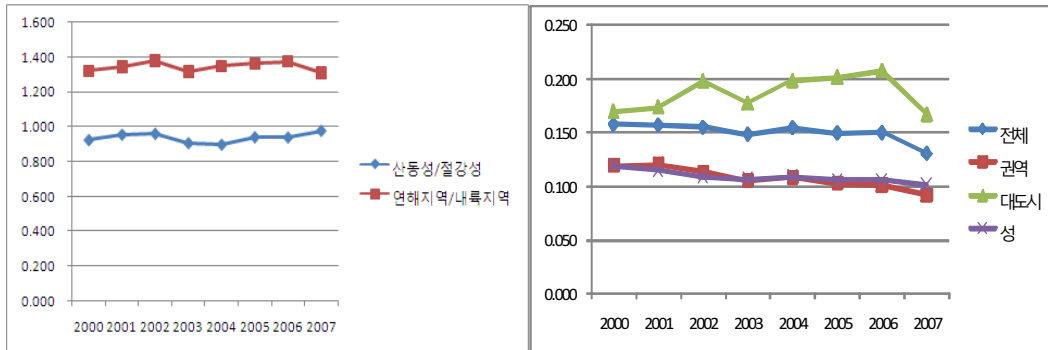


5) 공공환경·시설

2000년대 이후 인구 당 의료기관병상 수의 경우, 산동성/저장성간 격차와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모두 대체로 증가하였고 연해/내륙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 성지역간 격차 모두 감소하였고, 광역자치단체간 격차가 성지역간 격차나 6개 권역간 격차보다 컸다. 특히 4개 대도시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당 병상 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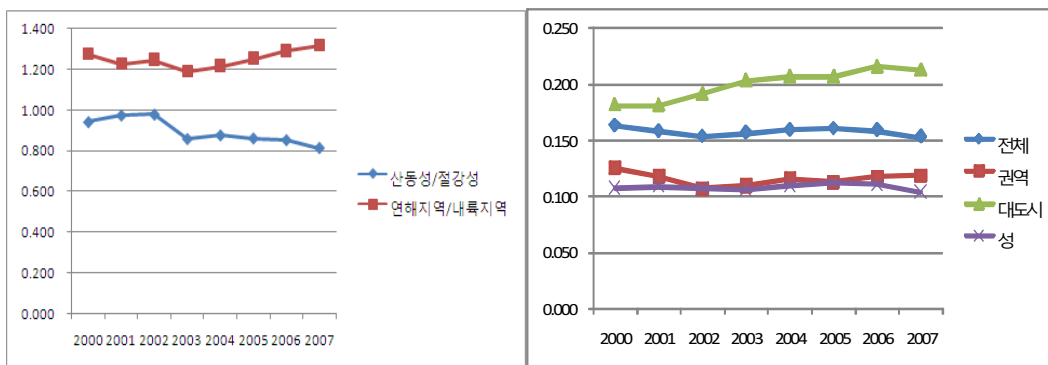


<그림 23> 1000인 당 병상 수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인구당 의료기관 의사수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산동성/저장성간 격차는 대체로 감소한 반면,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 성지역간 격차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4개 대도시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당 의료기관 의사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된다. 산동성과 저장성은 모두 연해지역에 있기 때문에 취업시장이 크면서 많은 의사를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내륙지역은 연해지역보다 지리적과 경제적 조건이 낙후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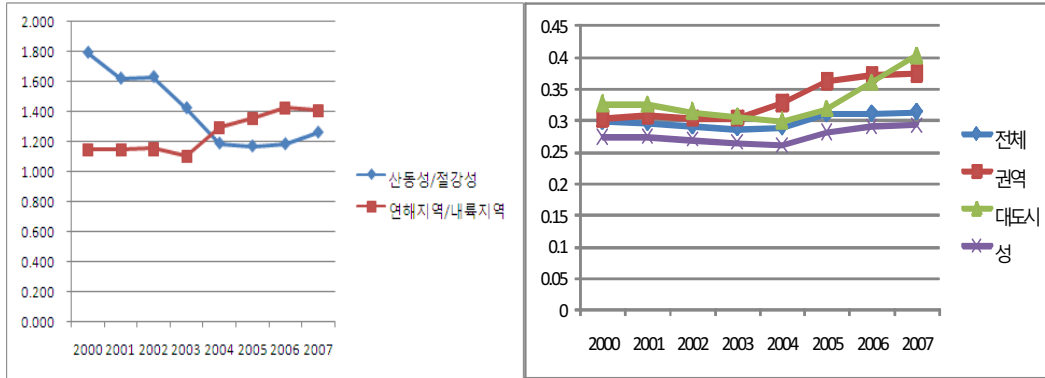
<그림 24> 1000인 당 의료기관 의사수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인구당 사회복지시설수의 경우 산동성/저장성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 4개 대도시간 격차 및 성지역간 격차 모두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개 대도시간 격차와 6개 권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약간 컸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인구당 사회복지시설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권역간 격차, 대도시간 격

차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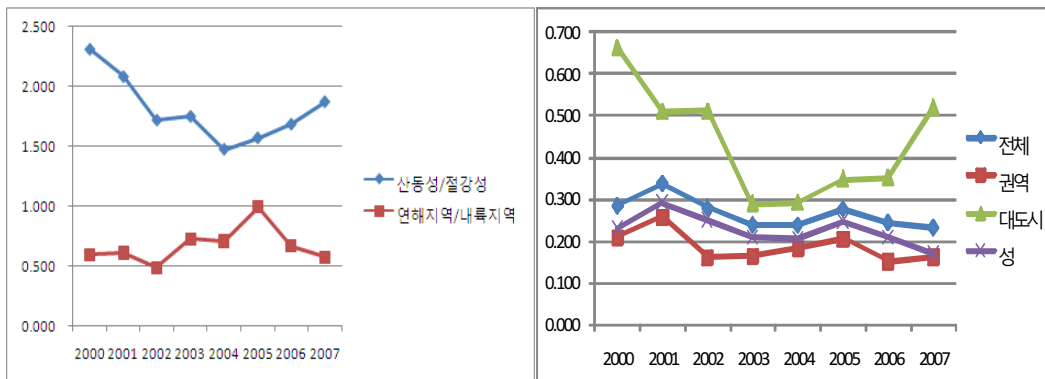
<그림 27> 100만인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격차 추이(중국)



6) 사회계층

사회구제총인구수에 있어서는 산둥성/저장성간 격차는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연해/내륙지역간 격차는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격차, 6개 권역간 격차, 성 지역간 격차는 모두 대체로 감소하였다. 다만 4개 대도시간 격차는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간 경제발전차이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사회구제총인구수에 있어서의 지역격차는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와 대도시간 격차로 요약된다.

<그림 28> 사회구제총인구 비율의 지역격차의 추이



3. 한국과 중국의 지역격차 비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한국과 중국의 지역격차 분석 결과 비교

		광역권역		대권역		대도시권		비대도시		영호남	산동/절강	수도권/비수도권	연해/내륙	대도시/비대도시	연해/내륙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인구	인구수	↗ H	→ L	↗ VH	↗ L	↘ H	↘ L	↗ H	→ L	↗ VH	↘ VH	↗ L	↗ L	↘ L	↗ L
	인구밀도	↘ H	→ H	↗ VH	↗ VH	→ H	↘ H	↗ L	↗ L	→	↘ VL	↗ L	↗ VH	↘ VH	↗ VH
지역경제	경제활동참가율	↗	→ L	↗	↗↗	→	↘ L	↗	→ L	↘ L	↘ L	→ L	↗↗	→ L	↗↗
	취업률	→	→	→	↗↗	→	↗ L	→	→ L	→ L	↘ L	→ L	↗↗	→ L	↗↗
	1인당 지역총생산액	↗↗	→ L	→	↗ L	→ L	↘ L	↗↗	→ L	→ L	→ L	↘ L	↗ L	↘ L	↗ L
	1인당 광공업생산액	↗ H	→ H	↗↗	↘ L	↗ H	↘ H	↗ L	↘ L	↘ L	↘ L	↘ L	→ H	↘ L	→ H
지방재정	1인당 지방세 징수액	→VL	↗↗ L	↘ L	↗ L	↗↗	→ H	→ L	↗ L	↗ L	↘ L	→	↗	→ L	↗
인적자원	취업자중 고졸이상 학력유보자 비율	↘ L	→ L	↘ L	→ L	↗VL	→ L	↘ L	→ L	↘ L	↘ L	↘ L	↗ H	↘ H	↗ H
	고등학생 대학진학률	↗↗	↗	↗↗	→	↗↗	→	↗↗	↘	→ L	↗ L	↘ L	↗ L	↘ L	↗ L
공공환경시설	천인당 병원침대수	↗↗	↘ L	↘ L	↘ L	↗ L	↗ L	↗↗	↘ L	→ L	→ L	↘ L	→ H	↘ L	→ H
	천인당 의사수	↘ L	→ L	↘ L	↘ L	→	↗↗	↘ L	→ L	↘ L	↘ L	↘ L	↗↗	↘ L	↗↗
	100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	↘ L	↗ L	↗ H	↗ H	↘ H	↗ H	↗ H	↗ L	↘ L	↘ L	↗↗	↘ L	↘ L	↗↗
사회계층	사회구체중 인구수	↘ L	↘ L	→ H	→ L	→ L	↘	↘ L	→ L	↗↗	↘	↘ L	→ L	↗	→ L

\* ↗↗ 지역격차의 정도가 크게 증가(1.5배 이상 증가); ↗ 지역격차의 정도가 증가(1배 이상 증가); → 지역격차의 정도에 큰 변화가 없거나, 증가와 감소를 반복; ↘ 지역격차의 정도가 감소(1배 이상감소); ↘↘ 지역격차의 정도가 크게 감소(1.5배 이상 감소).  
 \* VH 지역격차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0.5 이상); H 지역격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0.3 이상); L 지역격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낮은 수준(0.3 이하); VL 지역격차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0.1 이하).

한국과 중국의 지역격차 실태에 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격차의 영역별로 볼 때 한국과 중국 모두 인구영역에서 심각한 지역격차가 나타났다. 한·중 양국은 지역발전초기에서 모두 성장거점정책을 채택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지역이 형성되었고 자본, 기술 등 자원들이 지나치게 집중되었. 이러한 도시 및 도시권에서 형성된 “흡입현상”은 인구의 이전과 유입을 야기하였다.

지방재정영역에 있어서의 격차는 한국과 중국 모두 대응하는 지역단위(수도권/비수도권, 연해지역/내륙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톈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포함한 중국의 동부연해지역은 경제와 사회발전이 높은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외래 투자와 지방세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서부지역은 개방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기초가 빈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불균형 발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이 고도로 집중된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보다 지방세 수입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환경·시설 영역에서는 100만 인당 사회복지 시설 수에 있어서 모두 권역 간 격차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개별적인 권역에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과 중·서부의 낙후한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서부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전략은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중·서부지역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지만 오랜 기간 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한 동시에 중앙정부가 재정의 재분배 수단을 통하여 낙후지역에 대해, 특히 국민생활영역에 기초시설 등의 재정투입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권역별 발전은 시기에 따라 각각 한 권역을 선정하여 추진되어 왔다. 권역별 사이의 발전단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와 일치하는 경제발전정도와 분배수단도 다르므로 권역간 큰 격차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격차의 지리적 분석단위별로 보면 모두 대권역간 격차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권역은 모두 지리적 인근성에 따라 분류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권역에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과 낙후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 사이에서 그 자체의 격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권역 간 격차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중국의 권역 간 격차의 발생원인과 다르다. 한국의 각 권역은 중점으로 개발하는 시간의 선후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의 정도도 심각하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역격차의 실태에 대한 차이점도 여러 측면으로 나타났다.

첫째, 영역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는 인구와 지역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환경·시설영역에서도 지역격차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공공시설·환경영역의 지역격차는 한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부터 20세기 말까지 동부에 치중하는 불균형지역발전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동부연해지역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였고, 지방정부수입까지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부지역의 지방정부는 기반시설을 완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전략은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지 12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

이다. 서부지역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이다. 현재 중서부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지만, 여전히 전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60년대에 “거점발전”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각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다만, 한국은 1980년대부터 점차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재분배 수단을 통하여 낙후지역에 대해, 특히 국민생활영역의 기초시설 등에 재정투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체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지역경제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 중국은 6개 권역 간의 격차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 6개 권역 간의 격차가 낮은 수준이었지만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동부연해지역과 중부지역은 각각 전국인구의 37.98%와 26.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부지역은 전국 인구의 8.22%만 차지하고 있다(제6차 전국 인구 조사). 동부지역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서부의 많은 노동력들이 동부연해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큰 인구 격차가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를 초래하였다.

인적자본 영역에 있어서는 취업자 중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 비율에 있어서 중국의 연해/내륙간 격차가 한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일부지역은 산업구조가 불합리적이다. 특히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장기적으로 낙후된 경제발전단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취업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의 인재가 경제가 발달한 지역으로 유출되었고, 낙후한 교육수준 때문에 취업시장과 경제사회발전의 요구를 만족 못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특히,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대량의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공공환경·시설영역에서는 중국의 인구당 병상수의 지역격차가 한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기초시설건설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발전모델은 지역발전에 유리하지 않다. 한국은 지방정부재정지출에 있어서 기초시설의 건설에 큰 비중을 둔다. 한국정부는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증가하는 동시에 사기업과 재단법인 등이 기초시설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둘째, 지역분석단위별로 보면 중국의 연해/내륙지역간 격차의 정도는 한국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동·서부지역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비교적 큰 편이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부지역은 여러 차례 산업구조조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중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저개발 수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2차 산업 특히, 3차 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

었으므로, 산업구조간의 큰 격차를 단기간에 감소시킬 수 없다. 그에 비해 동부지역 경제의 변형은 막대한 자본, 기술로 인해 인구를 끌어들이며 도시화율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서부지역은 정부가 충청, 서안 등 도시에 대해 정책 및 경제 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주었지만, 도시의 흡수력과 방사효과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부연해지역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동부연해지역은 예로부터 대외 경제 교류의 표상이다. 특히 근대에 들어 외부침략을 받아 최초로 선진적인 서양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20세기 초기에 양호한 공업기반을 형성하였다. 중서부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산지와 사막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에 취약한 것으로 본다. 단지 장강유역 주변에 있는 항구도시만 발전했을 뿐, 다른 지역은 산업기반을 형성하지 못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초기 지역불균형발전과정을 거친 후 산업 조정과 재분배 등 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의 높은 도시화율도 지역격차의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지역격차문제가 발생한 사회배경과 경제체제에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외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지역격차 정도가 한국의 지역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영역과 특정분석단위에서 심각한 지역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지역완화정책은 어느 정도의 지역격차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역격차가 감소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지역격차문제가 있다.

## V. 정책적 시사점

한·중 양국의 지역격차의 실태 비교분석결과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계획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이다. 한국과 중국 각각의 지역발전의 과정을 보면, 초기에 모두 불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지역계획은 현재 발생된 지역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격차의 해소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 인구계획보다는 합리적 지역 인프라 및 산업 계획이 더욱 시급하다. 중국 중서부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침체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나 산업 인프라도 모두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적·재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한다. 또한, 불합리한 산업구조문제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이다. 한 지역의 발전은 주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생산 요소의 확장이다. 주로 노동력, 자본, 기술, 기반시설, 지식 관리, 천연 자원,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재정 인센티브, 세금 감면, 세금 환급,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인재의 육성 및 기술과 시장 정보의 제공 등의 수단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접근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중국은 향후 사회간접자본(교통네트워크,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초기에 한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제발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고속도로, 공항, 해상 운송과 같은 교통망 개발 및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통신 및 상하수도 관리 등과 같은 에너지개발 등 측면에서 서부지역이 동남부지역보다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서부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민간 투자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시해야 된다. 한국에서 교육은 급속한 경제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제 개발과 새로운 경제 환경의 적응에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 기반 경제는 세계화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재정적 수단을 이용해 낙후 지역에 대해 보충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국가 직접투자정책과 세입정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지역균형정책을 실행 이후 점차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와 우대정책을 증대하였다. 1994년에 중국에서 실행된 분세제(分稅制)는 지역격차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허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재정이전 지불능력이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재정이전지불수단은 지역격차를 감소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재정이전수단은 지방교부세제도·국고보조금제도를 포함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재정 영역에서의 지역 간 격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재정정책, 특히, 재정이전지불능력의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륙과 연해 지역 간을 비롯한 지역격차를 감소시키도록 중서부에 지원해야 한다(李源峻, 2002).

셋째, 지역격차 감소에 있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및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단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단

위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주민 또는 주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다양한 개발방식 적용의 가능성, 자원조달, 신속한 행정처리, 법제도의 개선 등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의 지역질서의 안전적 운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의 활력을 위한 교육, 고용, 문화 등의 지원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주민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운영은 지역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지역균형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참고문헌

- 장인재. (1996).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경북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8(2): 365-384.
- 권일·류상규. (2005).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국토계획」, 40(2): 23-32.
- 김경수·김형빈. (2006).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129-149.
- 김남이. (2012).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과 소수민족 이익에 관한 연구 : 정책적 측면과 이익주체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6(2): 23-50.
- 김미경. (2010). 북경시 지역격차 분석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호. (1998). 지역성장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경향의 고찰 및 평가. 「전북행정학보」, 12: 209-238.
- 김성록·이병주·조원향·윤준상. (2010). 중국의 지역간 경제지표를 이용한 지역개발정책의 효과분석: 10·5계획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1-15.
- 김소영. (1991). 韓國의 市間 地域隔差 實態와 隔差의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 (1987). 한국지역개발의 불균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모. (1997). 지역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행정연구」, 6(4): 5-25.
- 김영수·변창욱. (2006).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김윤상. (1986). 「도시모형론」. 대구: 경북대 출판부.
- 김윤상·김수동. (1984). 경상북도 지역격차의 분석. 「경북대법대논총」, 22: 157-174.
- 김호정. (2011). 「행정통계학」. 서울: 삼영사.
- 박성복. (1997).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 측정. 「한국행정학보」, 31(3): 119-140.



- 박지형·홍준현. (2007). 시·군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167-196.
- 박희봉·이희창. (2001). 경기도 남북의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운석. (2006).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보」, 19(3): 121-144.
- 성경룡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 심재희. (200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 분석. 「대한국토계획학회지」, 38(7): 201-209.
- 이관률·송두범. (2011).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1): 373-390.
- 이규택. (1997). 중국의 빈부격차와 그 원인 분석. 「中國學論叢」, 323-356.
- 이도선. (2008).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경상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3): 25-51.
- 이상엽. (1995). 中國의 地域格差 分析. 「한국행정학회」, 29(3): 713-732.
- 이종철. (1998). 중국지역격차의 요인분석. 「경제학연구」, 4: 285-308.
- 이희창·박희봉·강유진. (2006).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경기북부 저발전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 149-184.
- 정구현 외. (1994).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서울: 나남출판사.
- 정원식. (2001). 지방자치시대의 도시간 지역격차의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141-160.
- 정재철. (1984). 재정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홍열. (2009). 중국의 시대별 지역개발정책과 지역 간의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 「東北亞經濟研究」, 95-125.
- 주장환. (2006). 중국의 지역발전, 지역격차 그리고 지역연계: 중앙의 정책과 지방의 대책. 「현대중국연구」, 271-287.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회」, 30(2): 81-95.
- 한표환. (1994). 도시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도시경제발전 파급효과. 「대한국토계획학회지」, 29(1): 37-56.
- 홍기용. (1994). 「지역경제론」. 서울: 박영사.
- 홍준현. (1999). '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분석. 「한국행정연구」, 8(20): 14-19.
- 홍준현. (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161-178.
- 홍준현. (2006). 지역격차의 실제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 황명찬. (1994). 「서울 21세기 구상」. 서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吳國章. (1999). 芻議中國區域經濟發展的差距問題. 「閩西職業大學學報」, 1(8):

25-32.

王春超, 余靜文, 胡繼亮. (2009). 中國的地區經濟發展差距(1987-2007) : 政府理念誘發-制度變遷的視角. 「當代經濟科學」, 6(31): 23-29.

李雲娥, 周雲波. (2007). 中國城鄉收入差距未來發展趨勢的預測. 「山西財經大學學報」, 14-19.

劉勝強, 周兵. (2008). 中國區域經濟發展差距研究綜述. 「經濟問題」, 53-55.

李占風, 瞿凌雲. (2005). 中國中, 東部區域發展差距及影響因素. 「統計與決策」, 80-83.

張平. (2007). 中國地區經濟發展差距的現實狀況與解釋. 「區域經濟與產業經濟」, 12-14.

張秀生, 陳慧女. (2008). 論中國區經濟發展差距的現狀, 成因, 影響與對策. 「經濟評論」, 53-57.

李源峻. (2002). 中國西部大開發與韓國地域開發的比較研究. 對外經濟貿易大學 碩士學位論文.

Bangs, R. L. & J. H. Hong. (1994). *Economic Benchmarks: Economic Indices for the City of Pittsburgh and Allegheny County*. Pittsburgh, PA: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and Urban Research.

Bangs, R. L., J. H. Hong & L. N. Nelson. (1993). *Pittsburgh Benchmarks: Quality of Life Indicators for the City of Pittsburgh and Allegheny County*. Pittsburgh, PA: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and Urban Research.

Cutter, S. L. (1985). *Rating Places: A Geographer's View on Quality of Life*.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Horley, J. & B. R. Little. (1985). Affective and Cognitive Components of Global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189-197.

Klosterman, R. E. (1990). *Community Analysis and Planning Techniques*. Savage, MD: Rowman & Littlefield.

중국통계국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

중국국토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lr.gov.cn/>

한국통계청홈페이지: <http://kostat.go.kr/>

접수일(2012년 09월 02일)

수정일자(2012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27일)